

일주론



민주평통 의장표창
진각종 불리원장 회정 정사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2006년도 의장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에서 표창을 받았다.



인드라망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월 3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576-1886



역사캠프 개최
나눔의집 원장 원형 스님은 2월 3-9일 나눔의집 부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주최하는 역사캠프 '피스로드(Peace Road) 2007'을 개최한다.(031)768-0064



설 맞아 차례특강법회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은 2월 6일 저녁 6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열린선원에서 설날을 맞아 '차례특강법회'를 개최한다.(02)386-4755



승가대 졸업식 및 전강식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은 2월 2일 오전 10시 운문사 만세루에서 제43회 운문승가대학·대학원 졸업식 및 전강식을 개최한다.(054)372-8800



재가연대 4기 상임대표 이취임식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진 상임대표는 2월 8일 오후 5시 송현로에서 제4기 상임대표 이취임 및 NGO 혁신모델 비전선포식을 연다.(02)2278-3417



한국명예교수회장 재선
한성대 연정열 명예교수는 1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07 한국명예교수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재선됐다.



연수회 및 정기총회
한국저분화학회 이귀례 이사장은 2월 3-4일 파라다이스호텔 도쿄에서 '제28회 차생활에걸치도사범 동계연수회' 및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01-0475

언론인 박찬 시인 타계

간암 판정을 받고 한달여 간 투병해온 시인 박찬씨(본지 논설위원·사진가) 1월 19일 오후 5시 향년 5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 1983년 월간 시문학에서 '상리마을에 내리는 안개는'이라는 시로 등단했다. 서울신문 기자와 논설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한국문학평화포럼 부위원장, 영상활동지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인재양성은 불교의 미래”

불교환경인재불사기금 3천만원 기탁
수경 스님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불교계 내 인재가 부족합니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불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리산살리기담백지화 운동,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 운동, 새만금 살리기 3보 1배 등 환경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사진). 스님은 지난 해 5월 서울 화계사 주지로 취임한 후 ‘인재불사’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수경 스님은 1월 19일 불교환경연대에 불교환경인재불사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불교환경인재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500만원의 ‘2006 불교환경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화계사 회주 설정 스님 주대에서 불교인재개발원에 3000만원을 전달하며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불교환경연대측은 올해부터 1억 원의 인재불사기금을 조성해, 장학생을 대폭 늘려 불교계 인재 불사의 지평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 중심에서 불교계 환경운동가, 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경 스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불교계 안팎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활동에 든든한 외호세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환경복지 불교계가 주도해야”

‘불교복지 영역 확대론’ 주장
지현 스님



“불교복지도 환경문제나 범죄자 가족 복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가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사진)이 1월 18일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열린 ‘불교리더를 위한 초청강연’에 참석해 불교복지의 영역 확대 및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지는 모든 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만큼, 환경과 복지를 접목한 ‘환경복지’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리를 가진 불교계에서 꼭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죄자 가족복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은 동정하지만, 범죄자의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족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범죄자 가족에 대한 복지를 제안합니다.”

지현 스님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쯤 관련 세미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한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약분야인 여성,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대중 대중사 제82회 탄신법요식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중 대중사 탄신 제82회 봉축법요식이 1월 23일 단양구 인사 살림보전 4층 삼강전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前 총무원장 윤덕 스님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대중대중 사님의 유지를 이어 대중불교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념식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이사장 해자)은 1월 23일 강북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해명복지원 이사장 해자 스님, 김준기 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김기성 서울시의회부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불교시민단체 신년모임



불교시민단체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모임을 열었다. 단체들은 2007년 조계종 종무기조 및 핵심사업과 사회부 사회팀 사업계획 및 현안을 공유하고, 불교시민단체들의 사업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8개 단체가 참석했다.

2007년을 뛰는 불자

김주현 - 선재마을의료회 회장

“의료소외지역 구석구석 ‘자비의 손길’ 당도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선재마을 의료회. 2005년 첫 여성회장으로 당선돼 지난 2년간 선재마을 의료회를 이끌어 온 김주현(53·강원대 간호학과 교수·사진) 회장이 올해는 남다른 각오를 품고 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회원’으로 돌아가는 해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많은 의료봉사를 펼치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으로 다 옮기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간 사활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의료봉사를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으로 확대하고 싶었지만, 재정·인력상의 어려움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2년 동안 선재마을 의료회의 활동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간 꾸준히 진행해 온 서울 봉은사, 부천 석왕사 무료진료와 서울역 노숙자 진료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노인선원에서 의료봉사를 하

고 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료검진도 시작했고, 평창 수해지역에 의료봉사를 나가기도 했다.

‘의료’라는 전문성에 회원들의 ‘성실함’이 더해져, 선재마을 의료회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지난 연말에는 그간의 활동을 인정 받아 서울 봉은사로부터 공로패도 받았다.

“2월 총회를 통해 회장은 바뀌겠지만,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를 펼쳐나간다는 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단이나 개별 차원에서 의료봉사를 요청하시면 언제

든 저희는 달려갈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의료인으로서 바쁘게 살아가는 김 회장에게는 또 다른 ‘직함’이 있다. 바로 한마을음선원 부설 한마을과학원 연구원이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치유모델을 대신한 새로운 치유모델을 찾는 것이 김 회장의 ‘화두’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결국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마을과학원에서는 수행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병의 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 마음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약사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깨닫는 김 회장. 의술을 통한 자비행과 봉사로서 다져가는 수행의 마음이 김 회장의 2007년을 빛내 줄 힘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보우승가대학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지금! 사찰발전에 필요한 실리적 이론과 의식을 최우선으로 배운 학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주일에 2일만 할애하면 교수님들의 열의와 교육제도로 실력을 완성해 드립니다.

1. 입학 안내

① 모집학과 및 정원 ● 불교학과 : 30명 ● 법패학과 : 30명 ● 불교문화예술학과 : 30명

② 응시자격

- 신입생 : 불교적 소양과 도타운 신심을 가진 성인
● 편입생 : 지원학과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이

③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④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02)763-5213
● 기 간 : 2007년 1월 15일 ~ 2월 26일

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 초본 ..... 1통
3. 반명함판 사진 (3cm×4cm) ..... 3매
4. 종단추천경우 : 종단 대표자 추천서 ..... 1통

2. 면접 일시

● 2007년 2월 27일 오후 2시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판

4. 교과목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Course Content. Rows include 불교학과, 법패학과, 불교문화예술학과, and 특 강.

5. 교수진

신규덕(연세대학교), 김영진(동국대학교), 김치은(동국대학교), 문우왕(동국대학교), 이효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일휴스님(경상강원 강주), 지홍스님(승가대이사장), 금담스님(승가대부학장), 능해스님(승가대교수), 경허스님(승가대교수), 대각스님(승가대교수), 대혜스님(승가대교수), 백영학(승가대교수)외 교내외석학

6. 문의

(02)763-5213. www.bowosamgha.com

보우승가대학학장